

르네상스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진주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김 주 애

目次

I. 서론	V. 결론
II. 사회·문화적 배경	참고문헌
III. 속옷의 개요	ABSTRACT
IV. 속옷의 특징과 변천	

I. 서론

일반 의복을 영어로 apparel이라 하며, 이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넓은 의미의 속옷 전반을 가리켜 intimateapparel이라 한다. intimateapparel은 underwear와 innerwear로 분류되어진다. underwear는 피부에 접한 속옷류를 총칭하며 innerwear는 주로 여성용 속옷을 의미한다¹⁾. underclothes는 underwear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피부에 접하거나 겉옷 속에 착용된 모든 속옷류를 총칭한다. 착용자에 따라 신사용 속옷, 부인용 속옷, 어린이용 속옷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대인의 생활가운데 속옷은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러한 속옷은 겉옷 속에 착용되는 것으로써 가능한 피부와 같은 기능을 겸비해야 하며, 방한, 방서 및 위생 등의 목적을 가지면서 쾌적한 착용감도 필요하다. 속옷은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 장식

적이고 심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고, 의복의 완전한 실루엣은 속옷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관계로 겉옷 못지 않게 속옷의 역할은 복식 그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겉옷 못지 않게 속옷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복식 산업계에서도 속옷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재질에 따른 속옷의 기능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속옷의 겉옷화라는 유행현상으로 속옷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옷에 관한 史的 고찰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속옷의 변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주로 여성의 속옷에 관한 것이며²⁻⁴⁾, 남성의 속옷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성 의복에 관한 연구로는 겉옷을 중심으로한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고대를 중심으로한 시대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⁵⁾ 및 중세를 중심으로한 남성 속옷에 관

1)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編, 纖維製品消費科學ハンドブック, 光生館, 1975, p. 338.

2)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 논문, 1985.

3)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大 석사 논문, 1985.

4) 鄭福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淑明女大 석사논문, 1986.

한 연구⁶⁾를 보고한 바 있다. 고대에는 속옷과 겉옷이 같은 성격을 가졌고 중세에는 속옷이 죄의식과 연관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과 함께 속옷은 비약적으로 진보를 하게 되었다⁷⁾. 특히 르네상스시대에는 속옷이 노출되면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 및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르네상스시대의 남성 속옷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하여 르네상스시대의 남성 의복에 관한 완전한 이해와 고찰을 돕고자 한다.

II. 사회·문화적 배경

근세 전기는 비잔틴제국이 멸망한 1453년부터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르네상스 시기를 일컫는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은 지중해 무역을 대양 무역으로 전환시켰고 이로 인해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그 중심세력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교회와 봉건제도에 의한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절대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운동은 16C부터 17C에 걸쳐서 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유럽제국은 이탈리아의 人本主義나 예술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르네상스시대를 통하여 16C로의 전환기에는 이탈리아 모드가 지배적이었

으나 16C 전기에는 독일이, 후기에는 스페인 모드가 지배적이었다⁸⁾. 스페인은 영국 복식의 셔츠, 파틀릿, 러플에 장식하던 블랙 워크(black work)⁹⁾ 등에 영향을 미쳤다.

르네상스는 창조의 시대였고 왕성한 관능의 시대였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이 르네상스시대 의복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으며¹⁰⁾ 슬래쉬와 퍼프는 의복의 사치와 호화로우움을 과시하였다. 또한 신봉계급의 대두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의복에도 적용되어 과장된 형태의 의복이 여성복 뿐만 아니라 남성복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청교도인은 여성 속옷의 에로티시즘은 무시한 채 남녀 의복의 사치스러움을 비난하였으며 계층구분을 목적으로한 의복 사용을 혐오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직물 산업에 있어서 생산체제 뿐 아니라 기술이 크게 발달되었으며, 또한 동방에서 품질이 우수한 브로케이드나 모직 등이 전래되었다. 직물 산업의 영향은 겉옷 외에 속옷에도 적용되어 캄브릭, 홀랜드, 로운 등 재료가 다양해졌다. 직조기술 외에 금·은·색사를 이용한 자수법이 연구되어 널리 애용되었으며, 다양한 종류로 개발된 레이스는 르네상스 복식의 특징적인 모습을 더해주었다. 16C 후기는 가는 허리와 니트 사용의 증가 및 의상형태의 과장이 특징적이었다¹¹⁾.

III. 속옷의 개요

장미전쟁¹²⁾의 종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5) 金珠愛,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I), 服飾文化研究, 5권 4호, 1997, pp. 12-31.

6) 金珠愛,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II), 服飾文化研究, 6권 1호, 1998, pp. 136-148.

7) 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 113.

8) 鷹可繪子, 服裝文化史, 朝倉書店, 1991, p. 146.

9)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 13. 1530-1630년경에 검은 견사로 린넨에 자수가 된 Spanish work, 연속된 소용돌이 모양의 패턴.

10) Eduard Fuchs, 풍속의 역사II 르네상스, 이기용·박종만 譯, 까치, 1994, p. 49.

11)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ix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0, p. 87.

12) 영국 Lancacter家(1399-1461)와 York家(1461-85)의 왕위 쟁탈전.

붕괴는 의복에 대한 중세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튜더왕조¹³⁾시대의 여러가지 변화는 속옷의 기능과 목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속옷은 피부를 보호하기보다는 계층구분을 위한 겉옷의 보조 수단이 되기 시작하였다.

남성 겉옷의 슬래싱은 그 속에 착용된 우수한 품질의 속옷을 노출시켜 셔츠나 셔츠를 가장하는 안감을 두드러지게 하므로서 새로운 패션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15C 말기부터 유행한 퍼프 모드 또한 속옷의 사치와 호화로움을 더하였다.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셔츠의 목부분에는 러플장식이 가해졌으며, 이후 이 러플은 분리되는 러프로 발전되었다. 셔츠 외에 계층과시를 위해 착용되었던 웨이스트코트는 더블릿을 벗을 때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16C의 속옷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의상을 사치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 모드였다. 의복에 있어서 상류층의 표시는 화려함과 신체적 불편함의 정도로써 구분되었다.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고안물처럼 남녀의 꼭 조인 허리는 매력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우월성을 나타내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속옷 기능은 남녀 모두 같았다. 즉 과장된 의상을 이용하여 계급을 표시하였음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착용자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겉옷은 실크, 새틴, 레이스, 타프타로 만들어진 반면에 속옷은 세탁이 용이한 린넨을 이용하였다¹⁴⁾.

한편 엘리자베스여왕¹⁵⁾이후의 지나치게 인공적이고 남성다운 의복은 16C 전반부의 남성 패션과 대조를 이루었다. 풍자된 여성 외형과 닮은 남성 실루엣은 남성의 동성애적 기질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연극무대에서는 남성 배우가 여성 역할을 주

로 하였는데 이 경우에 남성은 여성 모습으로 분장하는 기술이 뛰어나 여성 속옷을 착용한 남성의 외모는 관객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다.

IV. 속옷의 특징과 변천

1. 셔츠(Shirt)

르네상스시대의 셔츠는 중세처럼 가려지지 않고 여러부분에서 노출되었으며¹⁶⁾ 이것은 란제리 셔츠(lingerie shirt)라고도 하였다¹⁷⁾.

셔츠는 1510년경까지 낮은 목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히 풍성하였다. 초기에 셔츠 앞부분은 각이진 좁은 목밴드로 구성되었고, 보통 머리 위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트여 있었다(그림 1, 2). 풍성한 셔츠 소매는 좁은 손목 밴드로 구성되었으며



〈그림1〉 Shirt, 1498,
Underwear, B. T. Batsford, p. 16

13) 튜더(Tudor)왕조, 1485-1603.

14) Elaine Benson John Este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1996, p. 109.

15) Elizabeth I., 1558-1603.

16)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 102.

17) 申尙玉, 西洋服飾社, 修學社, 1995, p. 158.

18)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 265.



〈그림 2〉 Shirt of the 16C.
A History of Costume, p. 277



〈그림 3〉 Shirt, 1540,
The Book of Costume, p.434



〈그림 4〉 Shirt with low collar and
small frill, 153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 Faber, p. 29

목과 손목의 밴드는 금사 혹은 흑색과 적색의 색견사로 자수되었다.

더블릿을 통해 셔츠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면서 셔츠는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¹⁸⁾. 1510년경 부터 더블릿의 앞여밈을 열고 착용하므로써 셔츠 앞쪽의 자수 장식이 노출되었으며, 그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더블릿 아랫쪽 단과 허리사이로 셔츠가 빠져나오곤 하였다. 또한 더블릿 소매 아래로 셔츠의 손목 밴드가 돌출되었으며 더블릿의 장식적인 슬래쉬를 통해서도 셔츠가 보였다. 1545년경 까지 셔츠는 대부분 노출되었으며, 슬래쉬를 통해 셔츠를 노출시켰던 유행은 변화되어 색깔있는 실크 퍼핑(puffing : 부풀림)으로 슬래쉬를 채우므로써 여전히 속옷의 노출을 가장(假裝)하였다.

르네상스시대를 통하여 셔츠의 목선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즉 더블릿의 칼라가 높아짐에 따라 셔츠의 목선도 높아졌으나 몸통과 소매는 변화되지 않았다¹⁹⁾. 1490년경부터 목선의 프릴과 커프스는 점차 노출되면서 사치스럽게 장식되었다²⁰⁾. 1525년



〈그림 5〉 Standing collar shirt, 16C,
The Book of Costume, p.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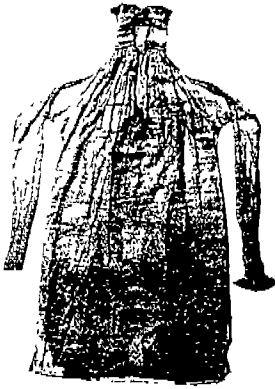
이후에는 목선이 높아졌고(그림 5) 목부분은 넓은 밴드로서 맞게 되었으며 앞트임은 끈이나(그림 3) 단추로 조여졌다(그림 6). 한편 턴-다운 칼라로 이루어진 밴드는 폴링밴드(falling band)나 작은 프릴(frill)로 발전되었다(그림 4).

똑바로 선 목밴드는 점차 높아졌고(그림 6, 7, 8)

19) Valerie Cumming,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1991, p. 24.

20) Alison Carter, Underwear, B. T. Batsford Ltd, 1992, p. 15.

21)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Dover, 1992, p. 261. Sture는 스웨덴의 귀족으로 1567년 사망, 스웨덴의 Uppsala대성당에 4개의 스투셔츠 보존.



〈그림 6〉 Sture shirt²¹⁾, 1567.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261



〈그림 7〉 Shirt, late 16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42



〈그림 8〉 Ruff, wrist ruffs, 1587,
Costume of Fashion, p. 97



〈그림 9〉 Ruff and falling band, 1597,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ixteenth Century*, p. 111

프릴과 러플이 손목밴드에 부착되었다. 그리고 턱-백 커프스(tunned-back cuffs)는 보통 폴링밴드²²⁾와 함께 착용되었다. 폴링밴드나 턱-다운 칼라(tuned-down collar)는 많은 변화와 함께 계속 유지되었고 보통 셔츠에 부착되었다. 또한 더블릿의 칼라가 높아짐에 따라 셔츠의 칼라도 높아졌다.

그러나 17C 초기에 더블릿의 칼라가 사라지자 폴링밴드는 낮아지면서 어깨위로 넓게 퍼졌다. 1630년까지 스탠딩밴드(standing band)나 폴링밴드는 양자택일의 칼라로써 지속되었고 스탠딩밴드는 철사 골조인 언더프로퍼(under-propper)²³⁾로 지탱되었다²⁴⁾. 이것은 목둘레가 잘 맞고 직선의 수평 가장자리를 이루는 앞과 부채형태로 퍼진 뒷부분으로 구성되며 턱아래에서 끈으로 조였다. 스탠딩밴드와 폴링밴드의 가장자리는 넓은 레이스로써 장식되었다. 처음에 목밴드의 가장자리를 장식한 프릴이 기원인 러프는 1560년경에 앞이 트여진 주름잡힌 칼라로 발전되었다. 1580년경에 셔츠로부터 분리된

러프는 끈으로 묶여졌다. 러프는 목부위뿐 아니라 손목에도 이용되었고²⁵⁾ 노동자는 러프를 착용할 수 없었으므로 러프는 신분을 상징하는 확실한 품목이었다²⁶⁾. 러프는 큰 'cartwheel' 형태로 발전되어 목주위를 전부 덮었으며 오르간 파이프 주름과 같은 형태(sets)는 목에서 바깥으로 고르게 퍼졌다. 1580년대에서 1615년에 걸쳐 러프는 폴링밴드 위에 착용되었다²⁷⁾(그림 9). 러프의 재료로는 캄브릭, 홀랜드,

22)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앞의 책, Dover, p. 37, 16C에 band는 칼라에 대한 일반 용어.
 23)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 309. 스포르타즈(supportasse) 혹은 리바토스(rebato)라고도 함.
 24) Norah Waugh,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Faber and Faber, 1977, p. 18.
 25) Jennifer Ruby, *Underwear*, Batsford, 1996, p. 14.
 26) James Laver, *Costume*, Hawthorn, 1963, p. 45.

로운(lawn)과 우수한 품질의 나사가 이용되었으며, 견사로써 자수가 되거나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돌렸다. 1620년 이후에는 높은 러프 대신 자연스런 주름이 어깨 위로 퍼지는 폴링러프로 대체되므로서 르네상스시대의 목주위 장식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Falling ruff, 1620-3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 Faber, p. 30

16C 전기를 통하여 가슴 상단부를 노출하는 셔츠의 낮은 목선에 의한 수평선은 어깨 넓이를 강조하여 남성의 性的매력을 나타내었다. 차츰 올라간 목선으로 인해 어깨의 강조 대신 높아진 목부분이 상류계급의 새로운 상징으로 되었다²⁸⁾. 1533년의 사치금지령에 의해 기사 이하의 계급에서는 주름잡힌 셔츠나 금, 은, 견사로써 장식된 셔츠를 착용할 수 없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아름다운 주름과 자수가 놓여진 가장자리로 구성된 셔츠가

특징적이었다²⁹⁾(그림1, 5). 독일의 셔츠는 이후 스탠딩칼라가 유행될 때에도 이 특징이 계속 유지되었다.

16C 후기에 이르러 자수가 사라지게되자 가장자리를 보빈레이스(bobbin lace)(그림 11)³⁰⁾로써 장식한 드론(drawn)³¹⁾이나 컷워크(cut-work)³²⁾로 대체되었다.



〈그림 11〉 Embroidered ruff is edged with bobbin lace, 1562.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 85*

겉옷에 사용된 값비싼 재료는 세탁하기가 어려웠으나, 보통 린넨으로된 셔츠는 세탁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셔츠는 위생상의 이유보다는 값비싼 겉옷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되었다³³⁾. 셔츠는 보통 흰색이며, 재료로서 상류층은 아주 고운 린넨인 캄브릭(cambric)³⁴⁾이나 홀랜드(holland)³⁵⁾를 이용한

27)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Faber & Faber, 1970, p. 16.

28)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1981, p. 31.

29)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ume I*, Crown pub., p. 372.

30) 16C에 거친 실로 구성된 레이스로써 보빈으로 만들어짐.

31) 曹圭和 編著, 服飾辭典, 耕春社, 1995, p. 79, 직조된 실을 부분적으로 빼내거나 잘라내거나 한쪽으로 쓸리게 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자수기법. 경사나 위사의 어느 한쪽이나 두쪽 모두를 빼냄.

32) 레이스 바탕의 오려낸 자리에 무늬를 넣는 자수.

33)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bert, 1990, p. 30.

34) 16세기에 이용된 매우 우수한 품질의 린넨

반면에 하류층은 거칠고 조악한 캔버스(canvas)를 이용하였다. 셔츠는 품질이나 재단방법 외에도 트리밍과 장식의 정도에 따라 계층이 구분되었다³⁶⁾.

2. 웨이스트 코트(Waist c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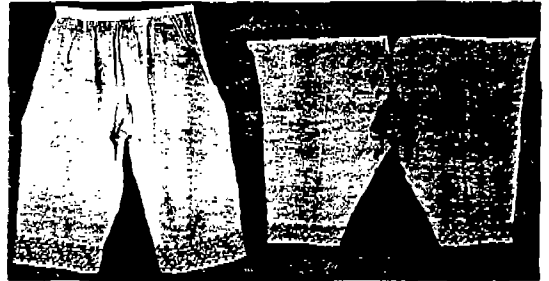
웨이스트코트는 더블릿 속에 착용되었으나 평상복으로 이용될 경우 단독으로 착용되어 노출되었다³⁷⁾. 15C 중엽부터 16C 후기까지 웨이스트코트는 때때로 페티코트로 불려졌고³⁸⁾ 길이는 허리까지였으며 소매가 있거나 혹은 소매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웨이스트코트는 16C 후기에 보통 누비거나 과장된 언더 더블릿 형태였으며 색상으로는 주홍색이 많이 이용되었다³⁹⁾.

웨이스트코트의 소재로는 나사, 벨벳, 견 혹은 린넨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자수장식을 하였고 얇은 비단(sarcenet)으로 안을 대거나 은 레이스로써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하였다⁴⁰⁾. 한편 호츠는 웨이스트코트에 매어졌다⁴¹⁾. 17C 초기에는 이것을 베스트(vest)로 불리었고 이 용어는 재단사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으며, 이 베스트에는 일정한 크기의 포켓이 있었다.

3. 드로워즈(Drawers)

중세 브레로 부터 유래된 드로워즈는 현대식 팬츠와 상응하였다. 이것은 16, 17C를 통하여 드로워즈, 트로즈(trouses), 스트로즈(stroussers)등 여러 명칭으로 이용되었다. 트로즈는 16, 17C에 트렁크 호츠

속에 착용된 것으로 속바지인 드트워즈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⁴²⁾. 16C 후기와 17C 초기에 이용된 스트로즈는 때로는 트로즈로 불리워졌다. 이것은 무릎이나 발목길이었고 신체에 맞도록 사선으로 재단되었으며 소재는 린넨이었다⁴³⁾. 드트워즈 부리에는 자수로서 장식을 하였다(그림 12).



<그림 12> Embroidered Linen Drawers, Late 16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44

또한 16C 후기의 새로운 변화는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기원된 스카비로니언즈(scabillonians)나 스카비론즈(scavilonnes)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견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것이었다.

4. 나이트클로즈(Nightclothes)

16C에 이르기까지 남성은 나체 혹은 데이셔츠(day-shirt)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16C에는 질적인 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셔츠가 잠자리에서 착용되었다. 16세기의 귀족들은 자수된 셔츠나 소모사로 된 나이트셔츠(nightshirt)를 착용하였다⁴⁴⁾. 나

35) Holland에서 유래되며 후에 고운 린넨에 이 명칭이 적용됨.
36) Alison Carter, 앞의 책, p 15.
37) Valerie Cumming, 앞의 책, p. 24.
38)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앞의 책, 1981, p. 31.
39)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앞의 책, 1970, p. 99.
40)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앞의 책, 1992, p. 43.
41)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위의 책, 1992, p. 26.
42) Cunningham & Beard, 앞의 책, p. 218.
43) Cunningham & Beard, 위의 책, p. 207.

이트셔츠는 데이셔츠와 같은 형태로 앞트임과 낮은 목선으로 이루어졌으나(그림 13) 길이에 있어서 데이셔츠보다 약간 길었다. 현존하는 스투 셔츠(Sture shirt)⁴⁵⁾ 중 칼라와 커프스 대신에 목선이 낮고, 손목이 넓은 밴드로 구성된 셔츠는 나이트셔츠로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그림 13〉 Nightshirt, 16C,
Medicine, p. 140

또한 이 시기에 착용된 나이트 캡은 흰색 외에도 보온을 고려하여 붉은 색상이 이용되었다. 1557년경 나이트 캡으로는 우수한 품질의 면이나 모로 된 것이 사용되었으며 1602년경에는 통풍을 위해 상부에 구멍이 있는 것이 권장되어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자수가 놓여진 나이트캡은 주간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착용되었으나 잠자리에서는 착용되지 않았다⁴⁷⁾. 상류층은 검은 벨벳에 자수 장식을 한 나이트 캡이었으나 하류층은 조약하게 끈 실로 된 나이트캡을 사용하였다. 한편 영국의 헨리 8세는 보석으로 장식된 나이트캡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나이트 캡의 소재 및 장식이 계층에 의해 구분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5. 콜셋(Corset)

16C 후기와 17C 초기의 멋쟁이들은 콜셋으로써 허리를 조였으며, 1598년 주교회관의 풍자물에서 남성의 허리는 매우 훌쩍하였다고 묘사되고 있다. 스타일이 상당히 과장되었던 1570년에서 1595년에 걸친 시기에 남성은 피스코드 벨리(peasecod-belly)와 엉덩이 사이에서 더욱 대조적으로 보이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래뼈로 뾰뾰하게 된 콜셋을 착용하였다⁴⁹⁾. 즉 인체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가는 허리를 선호하였다.

V. 결 론

중세의 속옷은 의복을 겹쳐 착용하는 경우에 노출되지 않고 단지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만을 가져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르네상스시대는 속옷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면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르네상스시대에 이용된 남성 속옷의 종류는 셔츠, 드로워즈, 웨이스트코트, 나이트클로즈, 콜셋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특징과 변천은 다음과 같다.

1. 셔츠는 겉옷의 슬래쉬로 인하여 겉옷 속에 착용된 속옷의 우수한 품질을 노출시켜서, 셔츠나 셔츠를 가장하는 안감을 두드러지게 하여 신분을 표시하였다. 16C 전기는 재단법에 있어서 가슴 상단부가 노출되도록 낮은 수평선을 이용하므로서 어깨 넓이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남성의 성

44) Cunnington & Beard, 위의 책, p. 146.

45)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Dover, 1992, p. 261. 스투셔츠는 주름잡힌 프릴이 칼라 상부에 부착되어 장식된 린넨 셔츠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칼라와 커프스가 없는 것은 나이트 셔츠로도 이용되었다.

46)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위의 책, Dover, 1992, p. 261.

47) Valerie Cumming, 위의 책, p. 24.

48) Millia Davenport, 위의 책, p. 434.

49) Doreen Yarwood, 위의 책, p. 128.

적 매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셔츠의 목선 또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서 어깨의 강조 대신 높아진 목선과 증가된 목장식은 상류계급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기사 이하의 계층은 주름잡힌 셔츠나 금, 은, 견사로서 장식된 셔츠를 착용할 수 없었다. 즉 셔츠는 품질이나 재단방법 외에도 트리밍과 장식의 정도에 따라 계층이 구분되었다. 또한 셔츠의 조임에는 끈 외에 단추가 도입되었다.

2. 중세 브레로 부터 유래된 드로워즈는 직선 재단 외에 신체에 맞게 사선 재단법이 적용되어 르네상스시대의 드로워즈의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트로즈, 스트로즈의 명칭으로도 이용되었다. 웨이스트코트는 언더더블릿 형태로써 더블릿을 벗을 때 노출되어 계층구별에 이용되었다.

3. 나이트셔츠는 데이셔츠와 같은 형태이나 데이셔츠보다 낮은 목선과 약간 긴 길이로 구성되었다. 종래는 잠자리에서 나체상태였으나 르네상스시대에는 나이트셔츠를 착용하게 되었으며, 나이트캡의 상부 구멍은 통풍을 위한 것으로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이 르네상스시대의 속옷은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기능인 계층구분을 나타내게 되었고 간접적으로는 성적 매력을 가졌다. 즉 셔츠, 드로워즈, 웨이스트코트, 나이트클로즈, 콜셋 등으로 이루어진 속옷류는 소재와 장식 및 형태로 계층 구별을 하였다. 걸옷과 마찬가지로 속옷에도 인체미를 중시하여 허리를 콜셋으로 조였다. 또한 직물 산업의 발달은 속옷에도 영향을 미쳐 속옷 재료가 다양해졌으며, 사치금지령이 속옷에 까지 적용되어 이 당시 지나치게 호화스러웠던 의생활을 반영하였다.

참고문헌

- 學校 식사논문, 1985.
- 金珠愛, 服飾文化研究, 5권 4호, 1997, pp. 12-31, 시대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연구(I)
- 金珠愛, 服飾文化研究, 6권 1호, 1998, pp. 136-148, 시대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II)
-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子大學校 식사논문, 1985.
- 鄭福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식사논문, 1986.
- 申尙玉, 西洋服飾社, 修學社, 1995, pp. 154-168.
- 曹圭和 編著, 服飾辭典, 耕春社, 1995, pp. 79.
- 鷹可繪子, 服裝文化史, 朝倉書店, 1991, p. 146.
- 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ソ協會, Body Fashion Book, pp. 113-114.
-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編, 纖維製品消費科學 핸드ブック, 光生館, 1975, p. 338.
- Alison Carter, Underwear, B. T. Batsford Ltd., 1992, pp. 12-16.
- Ann G. Carmichael and Richard M. Ratzan, Medicine, Beaux Arts, p. 140.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p. 261-334.
-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p. 34-262.
-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pp. 27-31.
-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ix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0, pp. 13-148.
-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63, pp. 218-279.
-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p. 18-283.
-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p. 100-144.
-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

- Eduard Fuchs, 풍속의 역사Ⅱ · 르네상스, 이기웅 · 박종만 譯, 까치, 1994, pp. 49-52.
- Elaine Benson John Este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1996, pp. 108-109.
- Elizabeth Ewing, Dress and Undress, Drama Book, 1981, pp. 11-177.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87, pp. 19-216.
- James Laver, Costume, Hawthorn, 1963, p. 45.
- Jennifer Ruby, Underwear, Batsford, 1996, pp. 13-14.
-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pp. 29-50.
-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ume 1, Crown pub., pp. 388-434
- Naomi Tarrant, The Development of Costume, 1996, pp. 90-105.
- Norah Waugh,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Faber and Faber, 1977, p. 18.
- Ribeiro Aileen and Valerie Cumming,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B. T. Batsford Ltd, 1989, pp. 46-136.
- Valerie Cumming, 廣瀨尙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pp. 20-29.

ABSTRACT

A Study on the Men's Underclothes of Renaissance Ages

This is a study on the Men's Underclothes of Renaissance Ages. The changes associated with the Tudor regime were sufficiently profound to affect the nature and purpose of underclothes. Ceasing to be merely a layer serving to protect the skin, they now began to assist the external costume of both sexes in expressing class distinction. In order to attract still greater attention, the edge of the shirt was ruffled at the neck, a decoration which soon developed into a separate accessory, the ruff. The waistcoat, which originally was an under-garment, was shown, when the doublet was taken off, *en deshabelle*.

Thus we see that for men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undergarment was no longer an obscure drudge, but was promoted to serve in the general mode of expressing what the whole costume so extravagantly announced : and likewise to share in that extreme degree of the social superior. The pinched waist of both sexes was not so much for sex attraction, but to signify social superiority. In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then, from the Tudors to the end of the Jacobean, the new function of underclothes was much the same for both sexes : to exploit the grandeur of the costume as evidence of rank, and only by that indirect method to add to the wearer's sex attractions.